
베트남, 無線呼出事業 動向

호치밍시의 무선호출사업자는 올해 7월 서비스개시 이후 1개월 동안에 약 600대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이것은 당초 목표로 하였던 3개월 동안의 500대 계약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시나우트라 페이징의 출자기업인 Singapore Telecom은 앞으로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4억 8,000만원)를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

호치밍시의 무선호출사업은 시나우트라 페이징, Singapore Telecom International, 호치밍시 우전관리국의 3자에 의한 합자회사로서 1992년 7월 20일부터 1년 동안의 가계약으로 시작하였다. 동사업은 시나우트라가 마케팅과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Singapore Telecom이 자금의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시나우트라는 1년간의 가계약 기간을 거친후 10년이상의 장기 사업계약을 호치밍시 우전관리국과 맺을 계획으로 있다.